

사생활 등 무단히 촬영·복사·배포하는 등 상권을 침해하지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행로 관통
 (명칭·운영권·IC 영수권·프론트·계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neasy.co.kr 0801-320-7700

이근호 골·골 ... 허정무호 간판 킬러 '우뚱'

'화끈한 골폭죽' 한국, UAE 4-1 대파

월드컵 최종 예선

한국 축구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제물삼아 승점 3점을 거머쥐며 월드컵 본선 진출 목표를 향해 힘차게 재시동을 걸었다.

한국 월드컵대표팀은 15일 서울 삼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UAE와의 경기에서 일방적인 공격끝에 4-1 대승을 거두었다.

허정무 감독은 '젊은 피' 이근호와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장신 공격수 정성훈(부산)을 투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운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캡틴' 박지성과 이청용이 좌우 날개를 맡고 경험 많은 김정우와 '막내' 기성용이 중원을 책임졌다. 포백 수비 라인에는 왼쪽부터 김동진-조용형-곽태휘-이영표가 늘어섰고 정성훈이 수문장으로 나섰다.

한국은 전반 6분 모하메드 알셰히에게 헤딩슛을 허용했으나 이후 초반 주도권을 쥐고 UAE의 골문을 두드리며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전반 19분 스피드를 앞세워 초반부터 UAE 진영을 휘젓던 이근호가 이청용의 침투 패스를 받아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5분 이반에는 '캡틴' 박지성이 나섰다. 이영표가 후반에서 찔러준 공을 수비수가 걷어내려다 흐르자 박지성은 아크 왼쪽에서 달려들며 오른쪽으로 강한 슈팅을 날렸다.

힘이 실린 공은 골문 오른쪽 위에 꽂혔다. 박지성으로서는 지난 5월31일 요르단과 3차 예선 3차전 이후 4개월 보름여 만에 수확한 통산 9호 골이었다.

2-0으로 전반을 마무리 지은 한국은 후반에도 공세를 이어갔지만 UAE의 반격도 매서웠다. 수비 후 역습을 노리던 UAE는 한국



2골이야

15일 저녁 삼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경기에서 이근호가 전반25분에 이어 후반 34분 두번째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2점차 리드로 다소 느슨해진 허접을 파고 들었다. 후반 한국 진영 깊숙이 침투해 있던 이스마엘 살렘이 수비수 조용형의 실수를 틈타 공을 가로챈 뒤 골키퍼 정성룡까지 제치고 골문을 갈랐다. 순간의 실수로 2-1의 아슬한 리드를 이어 가던 후반 35분 이근호의 발끝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쇠기울이 터져나왔다.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에서 2골을 몰아넣으며 위기의 허정무호를

구했던 이근호는 2경기 연속 2골에 성공하면서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킬러 탄생을 알렸다. '골 넣는 수비수' 곽태휘는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곽태휘는 후반 43분 김형범이 왼쪽에서 코너킥을 올려주자 그림 같은 헤딩 슈트로 승리를 자축했다. 지난 9월 북한과의 최종예선 1차전에서 1-1로 비기며 승점 1점을 나눠 갖는데 그쳤던 허정무호는 이날 승리로 사우디·이란의 모택바탐을 뚫고 월드컵 7회 연속 본선진

출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풍성한 골 잔치에 힘입은 한국은 승점 3점을 챙기며 승점 4 (1승1무),골득실+3으로 본선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반면 UAE는 3연패에 빠져 월드컵 본선행 티켓 경쟁에서 멀어졌다. 허정무호는 다음달 19일 '천적' 사우디 아라비아를 상대로 원정 3차전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선수가 15일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전' 남자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 출전해 48초94로 한국신기록을 달성한 뒤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100m 한국新

(수영 자유형)

48초94...체전 4관왕 확보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자유형 100m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전국체전 4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15일 오후 목포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94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두드렸다.

이 기록은 박태환 자신이 작년 전국체전에서 작성한 49초32의 기존 한국 기록을 0.38초 단축한 것이다.

일본의 사토 히사요시가 보유한 48초91의 아시아신기록에는 아쉽게 0.03초 모자랐다.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50m와 계영 400m, 계영 800m까지 3관왕에 올랐던 박태환은 이로써 금메달 4개째를 수확하며 5관왕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 화제 박스

창단 12년만에 감격의 우승

함평여고 펜싱팀 에베 '금'

15일 펜싱 여고 에베 경기가 열린 고흥 팔영체육관.

함평여고의 우승이 확정된 순간, 선수들과 관중이 하나가 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1996년도 창단한 함평여고 펜싱부가 전국체육대회 출전사상 12년 만에 첫 우승의 금자탑을 세웠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등 선수 후보들이 풍부한 곳에서 우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선수 수급이 쉽지 않은 시골 학교의 선전은 펜싱계에서 화제다.

올 중고연맹전과 종별선수권 단체전을 석권했던 함평여고의 우승은 조심스럽게 점쳐졌었다.

하지만 전국체육대회는 여타의 전국대회와 달리 선수와 감독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 우승을 자신할

수 없었다.

8강전에서 충북체육고, 4강에서 대전여자고등학교를 꺾자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승도 가능하겠는데"라는 기대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이들은 울산 중앙여고를 45-41로 누르고 감격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주원·정승원(3년) 쌍둥이 자매와 이순화, 최수정(2년)이 그 주인공.

이번대회 우승 주역은 지난 9월 25일 국가대표에 선발돼 이번대회 에베 개인전은 메달을 따낸 이순화(3년).

주장인 그녀의 화이팅 넘치는 플레이와 선전이 밑바탕이 되면서 쌍둥이 자매들 여타의 팀에서 볼 수 없는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우승을 일궈냈다.

함평여고 감독은 선수들의 실전감각을 높여주기 위해 전지훈련을 다니느라 두 달동안 집에 못들어갈 정도로 열성으로 지도해 우승의 밑거름이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경북과 막판 3위 다툼 치열

폐막일까지 접전 예상

광주는 종합 14위 확정

경기, 대회 7연패 달성

대회 폐막일을 하루 앞두고 광주는 당초 목표보다 한단계 낮은 종합 14위를 확정지었고, 전남은 마지막 날까지 경북과 종합 3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여대는 15일 순천 팔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6일째 양궁 여자부 단체전에서 기보배·신은정·조소현·조혜영이 금빛과 은빛을 명증시켰다.

복싱에서도 금메달이 이어졌다. 백호준(한국체대)이 복싱 대학부 라이트급, 강한솔(한국체대)이 대학부 라이트 헤비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완진(광주체고)도 남고부 라이트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으며 박광원(남부대)은 사격 남자대학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금빛 총성을 울렸다.

김달은(HI코리아)은 수영 여자일반 평영 50m에서, 동신고는 정구 남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보냈다.

펜싱에서는 남·여고등부와 여자일반 사브르에서 광주선발과 전남여고 모두 은메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경북과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은 이날까지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나 마지막날 단체전 경기가 많아 종합 3위를 안심할 수 없다.

김대용(전남체고)은 복싱 남고부 밴텀급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조덕진(국군체육부대)은 남자일반 미들급에서 역시 금빛 주먹을 뽐냈다.

정영현(한국가스공사)은 태권도 남자일반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함평여고는 12년만에 펜싱 여고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에 소중한 점수를 추가했다.

금메달이 유력했던 목포여상은 배구 여고부에서 서울 중앙여고에 세트스코어 2-3으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으며 조성모(전남수영연맹)도 수영 남자일반 자유형 1.500m에서 역시 은메달을 따내는 데 그쳤다.

15일 경기도의 대회 7연패와 서울 2위가 확정된 가운데 광주는 금메달 41개, 은메달 46개, 동메달 69개를 획득, 종합 14위를 확정했다.

전남은 금메달 43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76개를 따내 경북과 종합3위를 놓고 막판 순위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수·최재호·박양규기자 lion@kwangju.co.kr



15일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태권도 남자 고등부 헤비급 8강전에서 출전한 광주대표 김중윤(오른쪽)이 부산대표 박도훈에게 돌려치기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창단 7개월만에 '金 같은 銀'

목포과학대 여자탁구 준우승

"금메달은 너무 목표였었다"

15일 제89회 전국체육대회 탁구 여자단체부 경기가 열린 해남 우슬경기장.

신생팀 목포과학대가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진출, 용인대와 금메달을 놓고 겨뤘으나 0-3으로 패배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창단한 목포과학대 탁구 남자부도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과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해 단일 학교가 전국체전 탁구 전종별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체전 사상 처음이다.

김태훈(61)목포과학대 감독이 "이만하면 참한거야 됐다!"며 선수들 어깨를 두드렸다.

목포과학대 여자탁구부는 지난 3월말 창단돼 겨우 7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 단체전 은

메달의 성과를 거뒀다.

신재인·류혜정·김소연·정윤예 등 1학년으로만 구성된 선수들이 한마디로 일을 낸 것이다.

이번 대회를 위해 선수들은 하루 5~6시간의 강훈련을 묵묵히 이겨냈고, 짧은 시간에도 전국 정상권에 접근한 실력을 보여줘 탁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창단한 목포과학대 탁구 남자부도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과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해 단일 학교가 전국체전 탁구 전종별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체전 사상 처음이다.

김태훈감독은 "이제 1학년생들도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내년 체전에서는 반드시 금메달 2개 정도는 따내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